



산단 먼지 발생 확 줄여 '푸른 하늘 녹색도시'로

광양시가 산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든다. 광양시는 28일 "이를 위해 '푸른 하늘 녹색도시' 만들기 비산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철강업과 연관업체,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그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항만의 물동량 증가로 먼지 유발이 증가 추세여서 대비책을 세운 것이다.

또 산단조성,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시 전역에 걸쳐 먼지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광양시가 계획한 종합대책은 지난해 5월 비산먼지 관리 권안이 전남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먼지발생량을 줄이고, 도심 녹지율을 확대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푸른 하늘 녹색도시 광양 만들기'라는 비전을 제시한 배경이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또 덤프 등 대형 운행차량에 대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지속해 운반차량으로 인한 재 비산 사례 또한 동시에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 지도단속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최상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광양시 비산먼지 종합대책 추진

산단·택지개발로 오염원 증가
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단속
광양국가산단 시설도 개선
시 전역 단계별 벽면녹화 등
환경·산업 상생할 수 있게
도심 녹지율도 대폭 확대키로

나갈 방침이다.

시는 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차량의 운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본진 제거차량 청소사업을 운영하고, 하절기 도심 열섬화 예방을 시행하고 있다.

오존 발생 저감과 먼지 흡수원 확보를 위해 시 전역에 단계별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해 시원한 도시, 푸른 도시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민선6기 정현복 시장의 시책사업 중 하나인 벽면녹화사업과 비산먼지 종합대책은 그동안 시민과 환경단체, 인근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환경 친화적 안전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 목적의 일환이다.

이 밖에 시는 일부 광역단체 등이 시행하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물은 녹화조성비 일부를 지원하고, 신축건물은 옥지율을 높여줘 확산시

켜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관공서 건물과 벽면녹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산업단지 등의 공장 신축 시 벽면녹화도 입면녹화 처럼 조정면적으로 일부 인정해 주는 조례개정도 준비중에 있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지난 6월 광주과학기술원과 초미세먼지 연구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초미세먼지에 대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서비스 전달 등 통합적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박기홍 교수를 단장으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지난해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대기환경시스템과 측정소의 자료를 활용해 연구한다.

이로써 미세먼지의 변화추이, 지역별특성, 성분 검사 등의 기술과 자료를 공유·활용함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광양국가산단 내 비산먼지 사업장의 장·단기 시설개선을 비롯해 광양만의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현복 시장은 "산업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봉하고, 관련조례와 규정을 정비해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며 "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옥상·벽면녹화 조성을 통해 대기질 열 발생률을 줄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제철 폐열 활용 실내 정원 조성 등 시책 공모 7건 선정

광양시는 28일 "최근 실시된 '민선6기 시책·대규모개발사업 공모전'에 시책사업 92건, 대규모개발사업 37건 등 129건이 접수돼 이중 7건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접수된 공모 사항 중 실무기획단의 1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 대상 제안을 도출한 후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는 별도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경제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2건, 장려 5건 등 총 7건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으로는 '어린이 놀이 유원지 공원 개설'과 '광양제철소 폐열을 활용한 대규모 실내 정원 조성' 등이 선정됐다.

또 장려 5건은 '장애인 일자리 카페(cafe) 설치 운영계획', '대중교통 분실물 센터 운영', '난입부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산악레포츠(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 도로조성', '중고의류 수집함 애물단지에서 경관시설로' 등이다.

이 밖에 '광양제철소 폐열을 활용한 대규모 실내 정원 조성'은 광양시민이 가진 자원(폐열)을 활용한 실내정원 조성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적은 운영비용으로 이순신대교와 제철소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심의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입상자에게는 오는 10월 1일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안은 물론 입상하지 못한 제안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창의적 발명아이디어 공모 시, 9월25일까지 접수

광양시가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생각을 공모한다. 광양시는 28일 "시민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4 창의적 발명아이디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학생부(초·중·고), 일반부(대학생·시민)로 나누어 실시한다. 오는 9월 25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각 분야별로 선착순 150명(학생부 80명, 일반부 70명)에 대하여 발명품의 우수성, 효성과, 완성도 및 핵심기술의 적용도, 사업화 가능성, 전달력, 발명의 이해도 등을 심사 후 우수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일반부(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 장려 100만원)와 학생부(최우수 10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30만원)에 시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특허 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안	222-9440
단부	652-0175
동명	264-2012
동부	222-9054
문흥	225-6001
백운	267-4748
봉신	673-4698
북광주	675-5530
상무	525-3761
서광주	372-2352
송하	369-0583
신안	676-8605
양산	512-1732
오치	571-7658
용봉	266-7601
우산	522-7752
운천	512-8116
원곡	371-9818
중양	961-2339
중흥	222-1896
진철	224-8604
철단	673-1600
침당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하남	682-8112
화정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농향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교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